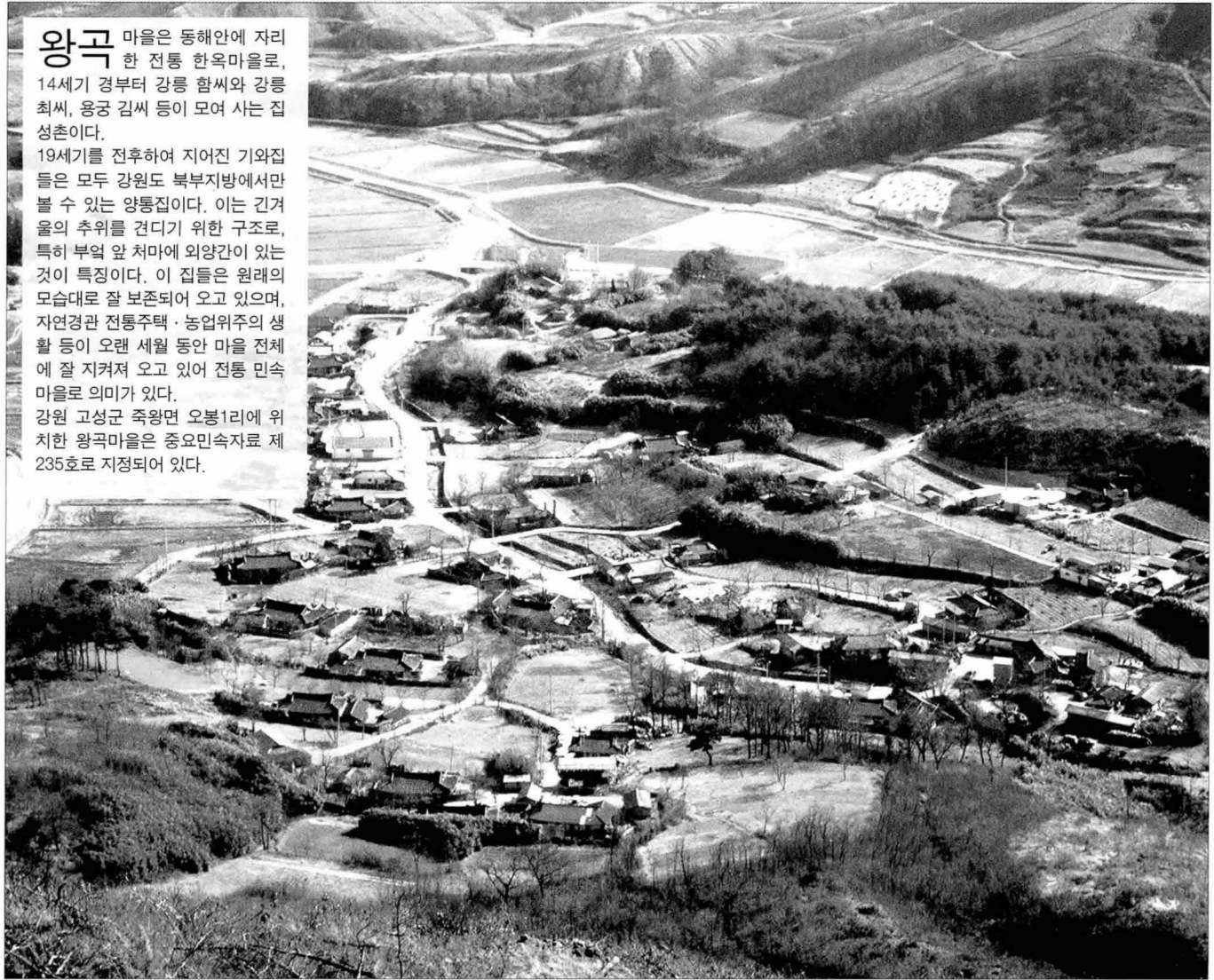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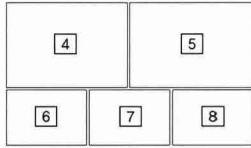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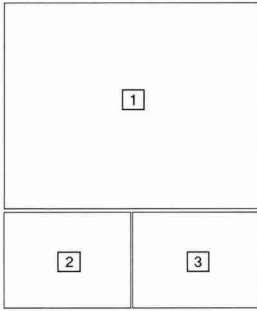


왕곡 마을은 동해안에 자리한 전통 한옥마을로, 14세기 경부터 강릉 함씨와 강릉 최씨, 용궁 김씨 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19세기를 전후하여 지어진 기와집들은 모두 강원도 북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양통집이다. 이는 긴 거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구조로, 특히 부엌 앞 처마에 외양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집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자연경관 전통주택·농업위주의 생활 등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전체에 잘 지켜져 오고 있어 전통 민속마을로 의미가 있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에 위치한 왕곡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직지’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 민속체험 행사서 인기 ‘짱’





1. 14세기 경부터 강릉 함씨와 강릉 최씨, 용궁 김씨 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인 왕곡마을 전경
2. 민속체험 행사 개막식 모습
3. 인쇄체험관을 취재하는 방송사들
4.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마련한 고인쇄체험관
5. 고인쇄체험관에서 직지를 시연하는 모습
- 6~8. 새끼꼬기 등 민속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에서 지난 8월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전통민속체험 행사에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출품되어 많은 관광객들과 강원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인 '직지' 홍보를 위해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에서 열린 민속체험행사에 직지 홍보관을 마련, 직지홍보 행사를 가졌다. 또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이창석 선생이 목판 시연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직지홍보관에는 직지 및 목판시연과 함께 직지를 홍보하는 다양한 판넬전시, 금속활자 및 목판 제작과정을 디오라

마로 제작 전시했으며 전통책을 제작하는 모습도 전시돼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성군이 주관하고 왕곡마을조촌회가 주최한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는 직지홍보관을 비롯, 윷놀이, 그네, 경운기타기, 비석타기, 굴렁쇠 굴리기, 짚풀공예 경연장, 미꾸라지잡기, 절구체험,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2일 오전 10시30분 죽왕면 왕곡마을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함형구 군수를 비롯해 김홍선 군의장 지역주민 피서객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